공원관리는 우리모두의 몫

정 영 득

인간이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고향과 처자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든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내고장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을 생각해 보았다. 말로는 팔공산 자랑을 많이들 하나 실상 가꾸는 일에는 소홀함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팔공산지부에서는 탐방객들로 오염되 가고 있는 팔공산을 대상으로 오물수거등 자연정화활동을 매년 2-3차례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니 어찌 버리는 자를 줍는자가 따라 잡을 수 있겠는가. 공원관리자는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라는 자연의 준엄한 논리를 우리는 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번은 부도암 근방으로 봉사활동을 갔었다. 부도암에서 내장암으로 맑은 물줄기가 흐르고 웅덩이에는 피라미 10여마리가 몹시 바삐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끼도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살까" 생각하며 누군가 먹다 떨어뜨린 밥풀을 한알 주어 던져주니 큰놈이 먼져 먹어 치웠다. 골고루 주려 했지만, 두번째 세번째도 역시 큰놈이 먹어 치웠다. 이처럼 보잘 것 없는 피라미도 욕심이 많은데, 하물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어떠한가.

등산갈 때 지고가는 보따리는 좋아도 갈 때는 홀가분하게 돌아오기 위해 서슴없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그 쓰레기는 누군가에 의해 수거되야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산수좋은 팔공산을 오염시키며 썩어갈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각기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아끼고 봉사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회회원 · 팔공산지부 사무국장]

녹색(Green)바람이 한창 일고 있다.

이 우 정

최근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그린정신, 그린마케팅, 그린냉장고, 그린컴퓨터, 그린소주, 그린마크, 그린저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린(Green)"이란 단어가 부착된 상품이나 표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그린(Green)은 기업이 어떤상품을 만들기까지 걸리는 과정에서 원료의 구입과 처리, 생산, 운반,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 불고 있는 이 녹색바람은 경제전쟁시대의 심볼마크로 단지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물결이 아닌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결로 발상자체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그린(Green)이란 단어를 쓰는 기업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에만 집

착한 상업주의적 발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며, 오히려 그린(Green)이란 허울을 쓴 대기업에서 조차 산업폐기물을 몰래 내다버리는 비윤리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해문제, 환경오염 등이 요란한 구호나 몇사람의 관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책임을 정부나 기업에게만 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바쁘게 생활에 쫓긴다지만 큰 노력이나 거창한 구호 없이도 날마다 작은 일 한가지씩만 이라도 실행에 옮긴다면 함께 이 지구를 푸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며, 푸른하늘·푸른산천·푸른바다를 즐기기를 바란다면….

[본회회원·인천 남동구]

"쓰레기 왕국" -이젠 벗어날 때가 아닌가!

박 종 덕

1인당 쓰리기량 세계1위

우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는 1인당 2-3kg, 가히 쓰레기의 왕국이다.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쓰레기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최근에 와서 쓰레기의 공해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높아져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운동을 벌이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모두의 의식이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호정책이 가장 잘된 독일에서는 매달 일정한 날에 도시의 모든 시청광장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한다. 멋장이 아가씨가 입던 옷에서 부터 우리가 보기에도 버려야 할 고물들까지도 나와 장사진을 이루며, 대대로 물려 입은 옷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닌다고 한다.

독일인들은 물건에 대한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아끼는 마음을 갖고 물건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버릴때도 다른사람이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내어 놓는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보다 쓰레기량이 1/3이나 적은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렇듯 쓰레기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재활용을 위해서 최소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구분되어 있는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분리해 넣는 것에서 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우유팩, 유리병, 캔, 비닐제품, 종이류 등을 분리해서 수거하면 재활용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모두 "쓰레기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 버리자.

[회사원]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토론장이다. 自然을 사랑하고 畏敬하는 녹색운동에 참여하는 이의 거리낌없는 提言과 熱情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자 원고지 5매 내지 10매이내〉